

# 3D·4D의 21세기에 고전·무성영화를 만나다



**‘알프레드 히치콕 특별전’ 23~26일 광주극장**  
**‘토요시네클럽’서 고전영화 감상 쪽~**

“다양한 느낌의 고전 영화를 만나다.”  
 전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3D와 4D 등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영화들이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요즘, 인기를 끌었던 옛 고전영화를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무성영화’를 대형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마련됐다.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1899~1980)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행사가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23~26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알프레드 히치콕 특별전을 갖는다. 상영작은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들이다.  
 제임스 스투어트와 킵 노박 등 할리우드 옛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현기증’(1958년)은 강박적인 에로티시즘, 페티시즘, 신경증 등의 어두운 주제를 아름답게 그려낸 걸작.  
 경찰관인 스카티 퍼거슨은 높은 곳에 올라 가면 심각한 현기증을 느끼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경찰을 그만 두게 되고, 친구로부터 망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부인 매들린을 미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는 신비로운 모습에 매혹되어 홀린 듯이 그녀의 뒤를 쫓고 어느 순간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히치콕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싸이코’(1960년)는 현대 호러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최고 걸작이다. 사장의 돈을 훔친 마리아노 노번 베이츠가 운영하는 한 모텔에 묵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직접적인 잔인한 묘사 대신 탁월한 촬영과 편집, 사운드의 힘만으로 가장 끔찍한 공포를 전달해주는 사위실 살해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앤소니 퍼킨스의 연기과 극도

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버너드 허먼의 음악도 긴장감을 높인다.  
 ‘새’(1963)는 재능영화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 새들이 무리 지어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는 영화다.  
 세 영화에 비해 다소 덜 알려진 ‘마니’(1964년)는 도박과 거짓말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후 매번 신분을 바꿔 회사를 옮기는 여주인공 마니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문의 062-224-5858.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하는 84회 아카데미 상에서 작품상 등 주요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아티스트’는 관객들에게 생소한 ‘무성영화’로 유성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스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 수입사는 무성영화와의 첫 만남을 앞둔 관객들을 위해 영화에 등장하는 강아지가 등장하는 무성영화의 특징들을 영화 속 장면을 이용해 재밌게 소개하는 가이드 영상도 제작됐다.  
 광주에서는 CGV 터미널, 메가박스 상무, 광주극장 세곳에서 상영중이며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극장은 ‘아티스트’를 관람한 느낌을 극장 홈페이지에 올린 관객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뷰 등을 올린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티스트’ OST, 폴햄 티셔츠, 책 ‘두려움과 떨림’ 등을 증정한다.  
 지속적으로 고전영화를 감상하고 싶다면 광주극장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토요시네클럽’(오후 2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중인 ‘토요시네클럽’은 할리우드 고전영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00여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해왔다. 영화 전문가인 유행철 전 광주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상영작을 선정하고 있어 든든하다. /김미은기자 mekim@



**아카데미상 10개 부문 후보 ‘아티스트’ 관객 호평**

## 네명의 미디어작가 네가지 봄이야기

3월 16일까지 미디어 큐브338서 ‘봄바람’展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3월 16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장 미디어큐브338에서 ‘2012 미디어레지던스 아티스트쇼-봄바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문화재단이 운영중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화·이이남·정은화·진시영씨가 참여한다.  
 박상화씨는 힘든 일상을 잊고 재충전하는 공간인 아파트를 형상화한 ‘내안의 꿈-겨울’을 전시하고, 이이남씨는 부부트 박물관과 김일성 동상을 대비시킨 ‘낯선풍경’을 선보인다.  
 또 정은화씨는 투명 아크릴로 인체의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붙인 뒤 LED빛이 투과되며 나타나는 다채로운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춤’을 출품했고, 진시영씨는 사람의 몸짓을 빛으로 표현한 ‘흐름’을 전시한다.  
 문의 062-670-74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이남 작 ‘낯선풍경’

## 지역작가의 개성 넘치는 작품속으로

롯데갤러리, 3월 8일까지 전시지원공모 작가전

광주 롯데갤러리는 3월 8일까지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장작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가를 소개하는 ‘2012 롯데갤러리 전시지원공모 선정 작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 공모에 선정된 김용철·최미연씨(신진작가부), 박상화·안희정·오용석(청년작가부)씨, 류현자·박수만(중진작가부)씨 등의 참여한다.  
 안희정씨는 집 안팎을 사진으로 찍어 전에 인쇄한 뒤 바느질로 한 뼀 한 뼀 엮어 집의 형상(큐브)을 만들어 낸 사진과 설치가 결합된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또 박수만씨는 길게 주름이 패인 이마와 과장되게 긴 목, 빈약하고 짧은 팔·다리로 표현된 현대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 밖에 박상화씨는 아파트 형태의 틀에 아파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집어넣은 설치작품을 출품했고, 오용석씨는 열싸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두드러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희정 작 ‘큐브’

## 명품조연 박철민에 듣는 ‘즐거운 인생’

23일 광주MBC 교양강좌, 영화·연극 관람권도 증정



아했던 의사로 열연했고,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카바레 출신의 어눌한 트랩펍 연주자 배웅기 역을 맡았다.  
 이번 교양강좌는 ‘웃음박사’ 김영식(남대부) 교수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추첨을 통해 영화·연극 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도 증정한다. 문의 062-360-26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배우 박철민씨가 고향인 광주 팬들을 만난다.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서경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박씨를 강사로 초청, 교양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 박씨는 ‘즐거운 인생’을 주제로 가난한 무명배우시절과 배우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으로 들려준다. 또 아버지와 형의 영향을 받으며 배우를 꿈꾸게 된 사연과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을 맡아 다양한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학생시절 이야기도 전한다.  
 박씨는 드라마 ‘뉴하트’에서 유행어 ‘뒤집랜드’를 연발하며 웃음을 자

아했던 의사로 열연했고,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카바레 출신의 어눌한 트랩펍 연주자 배웅기 역을 맡았다.  
 이번 교양강좌는 ‘웃음박사’ 김영식(남대부) 교수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추첨을 통해 영화·연극 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도 증정한다. 문의 062-360-26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페스티벌 오!광주’ 민간단체 작품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에 참가할 광주지역 민간 공연단체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광주지역에 연고를 둔 전문 공연예술단체로서 연극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초연 및 신규작품은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1개 작품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에 공식 초청되며, 기본 2회 공연을 기준으로 보상에 1000만원이 지급된다.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문의 062-670-7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2nd Wine & Dine

# Chateau Pavie dinner

‘100점 만점 와인’

황홀경을 부르는 최고의 와인.  
 한국 최초! 샤도 블랑 오너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메이커스 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3. 2 (fri) 19:30 Reception 19:00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문의 (062) 525-2111 |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생태밀리움에서빠비를 능가하는 것은 슈발블랑으로,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서만 그러하다.’  
 -와인의 황제 로버트 퍼커

Wine List

- Chateau Magneau Blanc 2006
- Chateau Monbousquet Blanc 2010
- Esprit de Pavie 2008
- Chateau Monbousquet Rouge 2009
- Chateau Pavie 2007
- Chateau Pavie 2005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의 대표 맛집

최석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르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